

이슬람교의 국내실태



김윤생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대표, 목사)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 일반대학원을 수료(실천신학 Th.M. eq)하였다. 현재는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그리고 한장총이슬람대책위원회와 예정합동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섬기면서 체계적인 이슬람교 육을 위한 각종 교재개발과 강의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은혜교회를 설립하여 국내외국민사역(미안바)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들어온 것은 고려 중엽 부터라고 하나 특별히 종교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6.25 전쟁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터어키 군에 의해 종교로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박정희 정부 시절 중동 붐에 편승하여 이태원에 이슬람 중앙사원이 건립되었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입국으로 국내 무슬림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이슬람협력기구(OIC) 56개국 및 시리아 출신 외국인 무슬림 17만 5,000명과 내국인 무슬림 3만 5,000명 등 도합 21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한국이슬람중앙회)

구 분	08년	09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2월말
OIC국민체인원 (불체자포함)	89,504	86,764	109,220	116,398	128,698	147,162	156,273	174,809
불법체류인원	31,639	25,714	23,070	22,589	23,653	23,876	-	-
불법체류율	35.3	26.9	21	19.4	18.4	16.2	-	-

(출처: 법무부, 한국이슬람중앙회)

2014년 외국인 무슬림들의 불법 체류율(16.2%)은 일반 외국인 불법 체류율(11.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의 IS등 국외 이슬람 테러단체와 연계 및 범죄단체 결성 등은 사회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무슬림은 노동자가 대다수이나 결혼을 통해 이주한 자와 유학생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이슬

람 전파와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 남성의 한국 여성과의 결혼 전략은 심신지체 장애여성, 이혼녀, 극빈층 여성, 나이 많은 미혼녀, 독거여성, 미성년자 등 취약여성 집중 공략('13.3 JTBC), 끈질긴 구애를 통한 지속적 공략('13.2 MBC), 국적취득 후, 태도돌변 사례 빈발('06.1 월간조선)등으로 한국인 여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와 한국인과의 결혼현황(결혼이민비자, F-6취득자)

〈남녀전체〉 16.12월말기준단위 명 %, 누계

구 분	우즈벡	파키	인니	키르기스	방글라	카자흐	기타	계
결 혼	1,566	800	545	368	316	164	739	4,499
비 율	35%	18%	12%	8%	7%	4%	16%	100%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학생의 경우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 대학의 무분별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학비면제는 물론 항공료,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가족까지 초청하여 동거하고, 귀국이 압박해서는 잠적하거나 신학 대학원에 기독교로 위장 개종한 후 입학하여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무슬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전국에 이슬람 사원(15개소)과 센타(2개소), 기도처(무쌀라, 101

개소)도 급속히 증가하여 이슬람 예배시설이 전국에 12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2017.12.31.현재)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와 유학생 편의 제공을 빌미로 공항, 호텔, 대학 기숙사 등에도 기도처가 계속 신설되는 등 '이슬람 공동체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 유학생연도별증가추이〉 (단위 : 명), 누계


구 분	08년	09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2월말
유학생수	2,124	2,914	3,841	4,360	5,106	6,105	7,206	8,551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러한 이슬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중소 산업단지 지역에는 무슬림 집단 거주지(Getto)가 형성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 · 충남 아산지역, 경남 김해 ·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벨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내 이슬람은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고, 이들의 중심에는 1970년대 중동 장학금으로 유학한 학자그룹이 있으며 수능 제2외국어 중에서 아랍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60%(현재 70% 상회)를 넘는 파행적 교육상황도 초래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슬람 금융인 스쿠크 도입이 시도되다 부작용을 우려한 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으

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슬림의 음식인 할랄(Halal) 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었다가 기독교계의 반대와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는 등 이슬람교의 한국 침투 및 전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년간 벌어진 탈레반, 알카에다, IS 등 극단주의 테러가 이슬람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슬람 난민 등 무슬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유럽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슬림은 따뜻하게 포용하되 이슬람에 대한 실체는 바로 알고 알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순위	시군구지역	무슬림수
1	경기도 안산시	9,505
2	경기도 화성시	5,467
3	경상남도 김해시	4,756
4	경기도 김포시	3,163
5	충청남도 아산시	3,083
6	경상남도 창원시	2,914
7	경기도 평택시	2,708
8	경상남도 거제시	2,706
9	경기도 포천시	2,524
10	경상북도 경주시	2,451
11	충청남도 천안시	2,248
12	경기도 시흥시	2,206
13	경기도 안성시	1,870